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09호 [루게 제24987호] 주제 104 (2015)년 7월 28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에 즈음하여 7월 27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고 인민군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황병서 동지, 박영식 동지, 리영길 동지, 김원홍 동지, 서홍찬 동지, 조남진 동지, 량철성 동지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인민군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이어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린다》의 노래가 주악되는 속에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군중,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인민군렬사 추모탑 망령에는 세워져있었으며 명예위병들이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군기들이

대가 정렬해있었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함께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돌아보시였다.



조국해방전쟁 참전렬사묘에 도착하였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명예위병대 대장이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들을 추모하여 들머리를 총구멍을 내리였다. 애국가의 장중한 주악에 이어 화환진정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꼭이 올리는가 이룩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